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신진원 · 박기성
(부산대)

1. 서론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의 개념적 은유이론 도입을 기점으로 은유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은유 표현의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기존의 번역 연구에서 다루었던 은유 소재의 범위를 문학적이거나 창조적인 표현을 넘어 일상에서 발생하는 언어생활, 즉 경제, 정치, 스포츠 등에 나타나는 표현으로까지 확대시켰다. 물론, 단순히 언어 인지적 차이만이 아닌 ST(Source Text: 원천 텍스트)와 TT(Target Text: 목표 텍스트)의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번역 과정에 개념적 은유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념적 은유이론이 은유 번역에 대한 이해와 번역 전략 설정 등에 유용하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편으로 관련

연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크리어러-브로메로우(Crerar-Bromelow, 2008)는 개념적 은유에 대한 숙지가 번역가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샤프너(Schaffner, 2004)는 은유 번역에 대한 인지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정치 텍스트의 예를 들어 입증하였다. 영한/한영 번역 연구에서도 개념적 은유 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다. 그 중 김순미(2002)는 경제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를 텍스트 결속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김순영(2008)은 화, 슬픔 같은 감정 표현들에 대한 번역을 개념적 은유 이론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제 텍스트상의 은유 번역 양상을 개념적 은유이론을 원용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경제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경제 텍스트의 은유 번역 연구가 정치나 다른 텍스트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통용되는 경제라는 개념이 비교적 현대적 산업 활동의 산물로서 문화마다 그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라는 상이한 두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언어 인지적 차이와 번역이라는 특수 화행¹⁾으로 인해 개념적 은유 이론이 경제 텍스트상의 은유 번역 전략 설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본 연구를 시작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적 은유이론이 경제 텍스트 은유 번역에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 활동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들에서 영어인 SL(Source Language: 원천 언어)과 한국어인 TL(Target Language: 목표 언어)에서 어떤 개념적 은유 차이가 있는지, 또 TT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번역 과정의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경제텍스트 영한 번역에서 번역가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원천 영역 별 그리고 그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 어휘 항목들의 문법적인 역할 별로 번역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여 개념적 은유이론을 이용한 은유 번역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은 경제 현상이나 그 활동과 관련한 개념적 은유의 기존 연

1) Hatim & Mason(1990)은 'Text Act'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번역을 하나의 특수한 화행(話行)으로 간주하였다.

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경제 관련 은유 표현들이 언어 간 문화 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차이를 번역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영어 ST와 한국어 TT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한국어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번역가가 실제 경제 관련 텍스트에서 나타난 개념적 은유를 다루는 방식을 원천 영역 별로 분류하여 번역 전략 별로 살펴볼 것이며, 또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 어휘 항목들의 문법적 역할에 따라 그 번역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할 것이다.

2. 은유와 번역

2.1. 경제현상과 개념적 은유

전통적으로 은유의 접근방식은 사고와 언어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관점에 따라 은유를 인지론적 현상으로 보는 방식과 언어 현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분류된다(Cameron & Low 1999). 이 중 은유를 인지론적 현상으로 보는 개념적 은유는 하나의 개념이 갖는 여러 측면들이 다른 개념의 비은유적 측면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Lakeoff 1993: 206).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텍스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인적 자원(human capital), ‘실업률 감소(falling unemployment), ‘신용경색(credit crunch), ‘성장률 가속(accelerating growth rates), ‘시장 붕괴(economic collapse) 와 같은 표현들을 살펴보면 경제현상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유기체, ‘대양, ‘재앙 등과 같은 비은유적 개념을 통해 설명한 개념적 은유들의 예이다.

차터리스-블랙(Charteris-Black, 2000)은 영어 경제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는 주요 개념적 은유로 ‘경제는 유기체이다, ‘경제 조직은 사람이다, ‘경제의 움직임은 대기/해양/대지에서의 움직임이다, ‘시장의 흐름은 놀이기구의 움직임이다, ‘경제/시장의 침체는 재앙이다 가 있다고 밝히고 관련 은유적 표현들을 제시했다. 그 표현들의 일부를 본 논문의 분석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영어 경제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요 개념적 은유와 은유적 표현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A healthy economy (안정적 경제) The inflationary tigers (인플레이션) Company doctor and giant market player (기업 컨설턴트와 거대 경쟁업체)
시장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움직임이다.
Stock plunged/plummeted/dropped (주식가격이 하락하다) Oil price slide (가격하락) Economy's soft landing (경제연착륙)
경제나 시장의 하락세는 재앙이다.
The collapse of IT industry(시장붕괴) Overheated stock market(과열된 주식시장) Market pressure (시장 압박)

경제 텍스트에서는 ‘healthy economy’ 처럼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경제를 인간의 육체적 상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며 ‘inflation’ 과 같은 경제 현상을 동물로 비유하여 이해시키기도 한다. 또한 경제나 시장의 흐름을 대기나 물에서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price slide/plunge’ 와 같이 표현한 경우나 시장의 침체를 물리적인 건축물의 무너짐으로 표현하는 ‘collapse of industry’ 와 같은 표현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어 경제 텍스트에서도 이런 개념적 은유는 쉽게 관찰된다. 박영순(2000)은 분야별 은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한국어 경제 텍스트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를 논했는데, 경제라는 목표 영역이 전쟁이나 기후, 생물, 물체 등으로 개념적으로 은유화되었다고 설명한다.

〈표 2〉 한국어 경제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적 은유와 은유적 표현

경제는 전쟁이다
1)세계 무역 대전 , 2)주식 시장의 뜨거운 영토분쟁 , 3)쇼핑 쿠테타
경제는 기후이다

1)IMF 한파 , 2)반도체는 햇발 , 강철은 먹구름 , 3)대우전자 안개 속
경제는 생물이다
1)의료주 시들 , 네트워크주 쾌속 , 2)주가 힘찬 날개짓 3)주식의 수요공급은 봄날치너처럼 변덕스럽다 .
경제는 물체이다
1)해외자본시장 급물살 , 2)주가 곤두박질 , 3)주식 시장 거품 빠지다 .

위의 한국어 개념적 은유 분류를 들여다보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대전 이나 ‘분쟁’, ‘쿠테타와 같은 전쟁으로 묘사하였으며 경제를 ‘기후나 ‘생물’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용해 표현하기도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위의 분류가 영어분류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경제적 거래는 육체적 분쟁이다’라는 근원 영역을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의 하부의 개념으로 종속시킨 반면 박영순의 한국어 분류에서는 ‘경제는 전쟁이다’라는 독립된 개념적 은유로 보고 있다. 또한 ‘주가 곤두박질’과 같은 은유적 표현들은 영어 은유 연구에서 ‘경제의 흐름은 물리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분류되는 반면, 박영순의 한국어 은유 연구에서는 ‘경제는 물체이다’라는 개념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개념적 은유들 간의 정확한 분류는 학자나 언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차터리스-블랙과 엔니스의 분류를 기준을 하여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 간 개념적 은유의 선호도 차이는 같은 서구 문화권에 속하는 영어와 스페인어의 은유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차터리스 블랙과 엔니스(2001)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를 설명하는 근원 영역으로 ‘경제의 움직임은 대양에서의 움직임이다’는 스페인어에서 보다 영어에서 더 자주 선호되는데, 이는 영국의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지리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영어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을 ‘육체적 건강상태로 사상(寫像-mapping)한 빈도가 높았던 반면, 스페인어에서는 ‘심리적 건강상태로 사상한 경우가 높았다. 이것은 스페인 문화저변에 깔린 종교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결국 두 언어의 개념적 은유에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하부 은유에서는 각각의 은유표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로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의 개념적 은유를 비교 분석한 청(Chung, 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세 언어에서 시장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조사하여 세 언어의 개념적 은유 선호도의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하고 통사적 위치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보고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세 언어 모두에서 시장이란 목표영역을 ‘경쟁’, ‘사람’, ‘동물’이란 근원영역으로 사상했는데,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어가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반면, 영어는 조금 달랐다. 즉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동물’이 영어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근원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지리적 심리적 차이가 사물을 개념화하는 데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 언어 모두에서 비유의 대상이 주어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개념적 은유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것은 통사적 위치가 개념적 은유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번역과정에서 은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2.2. 은유 번역

번역 연구에서 은유의 번역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ST와 TT 사이에 등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등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 접근에서 ST의 은유는 ST에서 TT로 손상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SL과 TL의 상이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등가 성취가 어렵다. 다귀(Dagut, 1976: 22)의 지적처럼, 은유는 언어 체제를 위반해서 미학적 충격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며 번역에서는 그 충격의 효과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이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그런 효과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번역을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구조적 차이점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번역 불가능으로 귀착되기 쉽다.

그러나 다귀(1976: 24)는 은유 번역을 단순히 은유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표현 자체를 치환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은유의 생성 기반이 되는 문화적 경험을 중심으로 번역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 덴 브록(Van den Broeck, 1981: 77)은 은유의 번역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결국 은유의 구조와 그 은유가 해당 텍스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

장한다. 이것은 은유란 번역 연구나 실제에서 단순히 번역가능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은유를 취급해야하는가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유 번역에 대한 이런 관점은 번역문의 독자, 수신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주의 번역이론인 스키포스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은유의 번역이 누구를 대상으로 번역문이 작성되는가, 해당 번역문 독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해당 문화 고유의 세계 지식이 공유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기대와 의사소통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은유번역 방식에 대한 관심은 은유번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혜승(2008a)은 은유번역에 미치는 이 영향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스키마, 공유된 배경지식,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 내 은유의 기능과 종류, 원천텍스트 저자의 위상 및 사용빈도, 유통성, 그리고 장르와 담화,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먼저 구체적인 은유번역전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스키마의 공유 여부라고 언급한다. ST와 TT의 독자들이 스키마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ST의 은유를 TT로 그대로 옮겨 놓았을 때 TT 독자는 그 은유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의 기능에 따라 은유번역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라이스(Reiss)의 경우³⁾, 소설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에서의 은유는 번역에서 그대로 옮겨져야 하는 반면 정보적 텍스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뉴마크(Newmark 1981a) 역시 표현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텍스트의 경우 창조적인 은유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TT에서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은유 유형의 관점에서 보면, 사은유(Dead Metaphor)는 그 은유적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반면, 창조적 은유의 경우는 그 은유적 내용 유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또한 ST 저자의 위

-
- 2) 은유의 구조는 반 덴 브록(1981)에 의해 어휘화된 은유, 전통적 은유, 사적인 은유 등으로 분류된다.
 - 3) 라이스는 언어의 기능에 따라 텍스트를 정보적, 표현적, 작용적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 4) 뉴마크는 은유성을 하나의 연장성으로 놓았는데, 은유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진 은유인 사은유(dead metaphor)와 작가 고유의 은유인 창조적인 은유(creative metaphor)를 극단에 놓고 그 사이에 상투적 은유(cliché metaphor) 표준은유(standard metaphor), 차용은유(adapted metaphor)를 두었으며, 은유성과는 상관없이 최근에 생성된 은유를 최신은유(recent metaphor)로 분류하여 은유를 6가지로 구분하였다.

상도 은유번역전략 설정에 주요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뉴마크(1981a)는 권위 있는 텍스트의 경우 ST의 은유가 그대로 유지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인의 연설을 예로 들었다.

그 밖에 하탐과 메이슨(Hatim & Mason, 1990)은 기호학적 범주인 장르, 담화, 텍스트가 은유 번역 전략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텍스트 전반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개념적으로 텍스트의 일관성과 결속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가면서 은유적 표현들 간에 개념적으로 서로 상당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번역가가 그런 논리적 연결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개의 표현만을 옮기는 데 열중한다면 결국 TT의 텍스트 짜임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순미 2002).

또한 이런 은유번역전략 설정에는 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투리가 제시한 보편적 특징 중 ‘표준화 증가의 법칙(the law of growing standardization) 과 ‘개입의 법칙(the law of interference) 의 측면에서 보자. ST에서 얻어진 텍스트적 효과가 TT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TL에 맞추어 다시 재편성된다는 ‘표준화 증가의 법칙은 ST에서 설정된 개념적 은유들이 TL 기준에 맞추어 변경되어지거나 생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반대로, 번역문은 ST의 구성 방식에 개입을 받는다는 ‘개입의 법칙은 번역가가 개념적 은유가 사상된 원천 영역을 그대로 옮길 것인가 또는 TL에 맞추어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소극적인 번역 전략을 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블룸 쿨카(Blum-Kulka 1986)는 번역과정에서 ‘명시성의 확대가 전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은유 번역의 전략에서 ST의 은유를 TL에서 선호되는 다른 은유로 대체하기보다는 ST의 은유를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 기술하거나 직유와 같은 보다 명시성이 확대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은유 번역 전략에 대한 논의는 뉴마크(1988b)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가 제시한 번역 방식은 라슨의 방식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된 형태로, 라슨(1984)은 ST의 은유를 TT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M→M)과 ST의 은유를 TT에서 직유로 바꾸는 방법(M→S), 기술적 표현을 덧붙여주는 방법(M→M+D), 그리고 기술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방법(M→D), ST의 은유를 또 다른 은유적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M→M')을 제시했다. 뉴마크(1988b)는 목표텍스트

에서 직유로 바꾸어주고 부가설명을 덧붙이는 경우(M→S+D)와 은유 표현자체를 생략하는 방식(M→∅)을 추가했다. 투리(1995)는 이들 번역 전략은 ST에서 발견된 은유로부터 시작되고 확인된 은유적 표현이 번역의 단위로서 취급된다고 언급하면서 TT의 측면에서 두 개의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그중 하나는 은유가 아닌 표현을 은유로 표현하는 것(D→M)과 또 하나는 ST에 아무 표현도 없던 곳에 은유(∅→M)를 첨가하는 것이다.

이혜승(2010)은 투리의 제안을 추가하면 결국 번역가가 은유 번역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이 방식들은 쿠스마울(Kussmaul)이 제시한 바 있는 문화적 함축을 해결하는 방법의 세 가지, 즉 ‘생략’, ‘대체’, ‘외연화 와 연관 지어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류 하에 본 논문의 텍스트분석 결과를 적용한다면, ‘일치’, ‘대체’, ‘외연화’, ‘생략’, ‘함축화’, ‘추가’라는 여섯 가지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이 구분을 채택하고자 한다.

3. 번역텍스트 분석과 논의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된 자료는 *If It's Raining in Brazil, Buy Starbucks*와 그것의 한글 번역문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리고 한국어 비번역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이다. 이 자료들에서 각각 5000자의 텍스트를 뽑아 경제활동 관련 개념적 은유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들은 주식 투자를 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제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투자의 지침을 설명하려는 텍스트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은유 표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분석텍스트로 선정되었다. ST와 TT의 쌍을 이루는 두 가지 분석텍스트 외에도 한국어 비번역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TT에 나타난 번역문의 특징을 살피기 위함이다.

텍스트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ST와 TT에 나타난 경제활동 관련 개념적 은유를 각각 분류한다. 그런 다음 그 개념적 은유들이 번역된 방식을 기존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상기에서 제시한 번역 전략의 여섯 가지 즉 ‘일치’, ‘대체’, ‘외연화’, ‘생략’, ‘함축화’, ‘추가’로 분류한다. 그 분류 기준을 정리

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은유번역전략

전략	방식	특징	번역가 개입
일치	M→M	ST의 은유를 TT에서 그대로 유지시킴 (분석텍스트 예시) ST)Nothing <u>soothes</u> the Wall Street soul. TT)월스트리트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도 없다.	
	M→M ¹	ST와 같은 개념적 은유 하에 하부은유가 달라짐 (분석텍스트 예시) ST)Our wages simply cannot <u>rise</u> in real, inflation(대기). TT)임금이란 것은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조건에서도 간단히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다(지면).	
대체	M→M ²	TL에서 같은 의미를 생산하는 다른 은유로 전환 (분석텍스트 예시) ST)The <u>growth</u> in real wages fell almost in lockstep with the productivity rate less than 1%(유기체). TT)실질 임금 상승률도 생산율과 점점 거리를 좁히면서 매년 1%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물리적 움직임).	적극적 개입
외연 화	M→M+ D	ST와 같은 개념적 은유에 부가적인 설명 추가 (분석텍스트 예시) ST)The <u>bear</u> ranks second behind only inflation as a menacing macrowave force. TT)불황이란 곱은 인플레이션 다음 가는 위험한 거시적 파동이다.	
	M→D	은유표현을 은유가 아닌 구체적인 기술로 전환 (분석텍스트 예시) ST)Capital goods and basic industries stocks don't hit their stride until the middle to late <u>bull phases</u> . TT)자본재와 기간산업주는 중반에서 후반 <u>강세 단계</u> 가 될 때까지 좋지 않았다.	
	M→S	은유를 직유로 전환 (분석텍스트 예시) ST)This rise in productivity has kept the inflationary <u>tiger</u>	

		at bay and allowed us to prosper. TT)생산성 증가는 <u>호랑이 같은</u> 인플레이션의 접근을 막고 우리의 삶을 반영케 한다.	
	M→S+D	직유 표현에 부가적인 설명 추가 (예시) ST)Merry is a <u>doll</u> . TT)메리는 <u>인형처럼 예쁘다</u> .	
생략	M→∅	은유표현 자체를 없앴 (예시) ST) Merry is a <u>doll</u> . She is so beautiful. TT) 메리는 아주 예쁘다.	적극적 개입
함축 화	D→M	은유가 아닌 구체적 기술을 은유로 전환 (분석텍스트 예시) ST)Hyundai benefited the most from the inevitable spike in chip prices from the <u>loss</u> of Taiwanese production TT)현대는 대만의 생산 <u>마비</u> 에 따른 칩 가격 상승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았다.	적극적 개입
추가	∅→M	아무 표현이 없던 곳에 은유표현을 첨가 (예시) ST)Merry is <u>beautiful</u> . TT)메리는 <u>걸어 다니는 인형</u> 이다.	적극적 개입

물론, 이 외에도 M+D→M, S→M, S+D→M와 같은 방식들이 ‘함축화’의 전략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M→M¹ 경우 같은 개념적 은유 하에 하부 은유들이 달라지므로 분석의 목적에 따라 ‘대체’의 범주로 묶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분류는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고안된 분류 기준임을 밝혀둔다.

3.1. ST, TT, 비번역문의 개념적 은유 비교

ST, TT, 비번역문에 나타난 경제활동 관련 개념적 은유를 분류해 본 결과, ‘경제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움직임이다’와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경제의 침체상황은 재앙이다’의 세 가지 개념적 은유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났

으며, 비번역문의 경우, ST와 TT에 나타나지 않은 기타 원천영역들이 일부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개념적 은유들은 그 원천영역과 관련한 여러 하부은유들을 갖는다. ST와 TT, 비번역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의 구체적인 원천영역의 종류와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ST, TT, 비번역문 개념적 은유 비교

원천영역	ST		TT		비번역문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물리적 움직임	47	31%	35	35%	114	62%
‘살아있는 유기체	95	63%	57	56%	45	25%
‘재앙	9	6%	9	9%	10	5%
기타					14	8%
합계	151		101		183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념적 은유가 나타난 빈도는 비번역문, ST, TT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한국어 TL에서 경제 관련 은유표현은 영어인 SL보다 더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TT는 번역과정의 보편적 특성 중 하나인 ‘명시성 확대’의 영향으로 은유적 표현이 덜 나타난다는 점이다. ‘명시성 확대’의 증거로는 비번역문에서 번역문인 TT보다 개념적 은유가 나타난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ST에서 나타난 중의적 표현이나 애매한 은유 표현들에 대해 TT는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다 분명한 기술적 표현으로 바꾸어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원천 영역의 종류와 그 선호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먼저 ST와 TT에서 경제 활동 관련 주요 개념적 은유는 경제를 ‘살아있는 유기체’,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물리적 움직임’, 경제 침체를 ‘재앙’으로 묘사한 개념적 은유 순으로 선호된 반면, 비번역문의 경우는 ‘물리적인 움직임’, ‘유기체’, ‘기타’, ‘재앙’ 순으로 선호되었다. 이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ST와 비번역문 텍스트가 취급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ST는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에 초점을 두어 가이드를 하고 있는 반면, 비번역문은 주로 경기흐름에 초점을 주어 투자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원천영역의 선호도 차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

깨는 ‘유기체 를 원천 영역으로 두는 개념적 은유의 경우 한국어 TL에서 보다 영어인 SL에서 더 선호된다는 점이다. ‘유기체 를 원천 영역으로 둔 개념적 은유만을 비교했을 때, ST(63%), TT(56%), 비번역문(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움직임 의 경우는 거꾸로 비번역문(62%), TT(35%), ST(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사상하는 개념적 은유를 한국어인 TL보다는 영어인 SL에서 더 선호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영어, 중국어, 말레이시아어에서의 경제 관련 개념적 은유 비교 분석인 청(2005)의 연구 결과, 즉 영어에 비해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어에서는 ‘동물 을 원천 영역으로 둔 개념적 은유가 훨씬 덜 선호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영어에서 경제활동이나 현상과 관련하여 ‘유기체 가 다른 언어권에서 보다 더 선호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비번역문에서는 ST와 TT에서도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은유가 사용된 점이 눈에 띈다. 비번역문에서는 ‘주식은 식물이다 ‘주식은 음식이다, ‘주식투자는 교통수단탑승이다 와 같은 더 다양한 은유 표현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어인 TL에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하부 은유의 출현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ST, TT, 비번역문 하부은유 비교

원천 영역	하부 은유	ST		TT		비번역문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물리적 움직임	물에서의 움직임	13	28%	11	29%	7	6%
	대기에서의 움직임	23	49%	21	55%	66	58%
	지면에서의 움직임	11	23%	6	16%	41	36%
살아있는 유기체	회사는 인간	25	28%	18	31%	7	17%
	경제상태는 육체적 건강 상태	18	21%	11	19%	1	2%
	경제상태는 심리적 건강상태	5	6%	5	9%	4	10%
	거래는 물리적인 분쟁(전투 또는 게임)	15	17%	11	19%	9	23%
	비즈니스 사이클은 다양한 동물	23	26%	13	22%	0	0%
	추가는 인간					9	23%
	시장참여자는 동물	2	2%			10	25%
재앙	경기 악화는 재앙	9	100%	9	100%	10	100%

‘물리적 움직임의 경우 ST, TT, 비번역문 모두에서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대기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ST와 TT 그리고 비번역문의 차이점은 ‘물에서의 움직임과 ‘지면에서의 움직임에서 드러났는데, ST와 TT에서 ‘물에서의 움직임이 ‘지면에서의 움직임보다 더 자주 나타난 반면, 비번역문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은 영어인 SL이나 한국어인 TL 모두에서 ‘대기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물에서의 움직임과 ‘지면에서의 움직임의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 두 문화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유기체 원천 영역을 갖는 하부 은유들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모든 텍스트 유형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유기체 원천 영역의 하부 은유들을 갖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ST나 TT에서는 나타나지만, 비번역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하위 유형(비즈니스 사이클은 다양한 동물이다)이 있으며, 반대로 비번역문에서는 나타났지만 ST나 TT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하위 유형(주가는 인간이다)도 존재했다. 또 ST와 TT의 비교에서 은유의 출현 빈도는 추상적인 경제 상태를 유기체의 심리적 즉 추상적 상태(경제상태는 심리적 건강상태이다)로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것으로 사상한 하부 은유들(경제상태는 육체적 건강상태이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동물이다)에서 그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시장참여자를 동물로 사상한 하부은유는 ST와 비번역문에는 나타났지만 TT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을 보면 비즈니스 사이클을 동물로 사상한 하부은유의 경우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ST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어 비번역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TT는 SL과 TL의 영향으로 그 수치가 ST와 비번역문 사이에 위치에 있다. 이는 이 하부 은유를 TT로 그대로 옮긴다면 비번역문과는 다른 투의 문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재앙과 관련한 하부 개념적 은유는 전체 텍스트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출현 빈도가 낮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특별히 하부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한편 TT의 은유표현 어휘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번역 TT와 비번역문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어휘항목을 하부은유 범주별로 검토해보자. 각 범주별로 나타난 어휘항목을 나열하면 <표 6>, <표 7>, <표 8>과 같으며, <표 9>는 비번역문에만 나타난 은유 표현들을 나타낸다.

〈표 6〉 ‘물리적인 움직임 과 관련한 은유표현 비교

	번역문(TT)	비번역문
물에서의 움직임	빠지다(1), 여파(3), 해일(2), 역류(1), 넘치다(1), 바다(1)	밀려들다(1), 빠지다(3), 쏟아지다(2), 알다(1)
대기에서의 움직임	떨어지다(4), 치솟다(1), 상승하다(9), 내리다(1), 곤두박질치다(2), 내려앉다(2), 추락하다(2), 파동(4)	떨어지다(29), 상승하다(24), 날다(2), 추락(1), 곤두박질치다(2), 돌파하다(6), 회오리바람(1), 급락하다(1)
지면에서의 움직임	오르다(4), 뛰어오르다(1), 접어들다(1)	오르다(34), 땀뿜다(3), 행진(1), 꿈틀대다(1), 넘다(1), 행보(1)

〈표 7〉 ‘살아있는 유기체 와 관련한 은유표현 비교

	번역문(TT)	비번역문
회사는 인간	회청이다(1), 누리다(1), 맛보다(1), 상처를 입다(2), 숭배하다(1), 성장하다(7), 영혼(1), 싫어하다(1), 죽이다(1)	잘못을 인정하다(1), 좌천시키다(2), 파멸하다(1), 조강지처(1), 현명하게(1), 재빠르다(1)
경제상태는 육체적 건강상태	회복기(1), 해독제(1), 두통거리(1), 고질적(3), 마비(1), 위기(2), 건강하다(1)	위기(1)
경제상태는 심리적 건강상태	침체되다(1), 두려워하다(2), 공포(1)	공포(1), 회의(2), 불안(1),
거래는 물리적 분쟁(전투, 시합 등)	맹습(1), 단기관총(1), 덮(1) 방어(1), 잠식되다(1), 변화구(1), 경쟁(1), 화살(1), 화살통(1)	전쟁터(1), 힘겨루기(1), 밀리다(2), 싸움(1), 살아남다(1), 대항하다(1), 줄다리기(1), 짓누르다(1)
비즈니스 사이클은 동물	호랑이(8), 곰(2), 황소(2), 야수(2)	
주가는 인간		뺨덕어미(1), 보살(1), 봄날치녀(2), 고향(1), 마음(2), 기다리다(1), 현명하다(1), 갈아치우다(1)
시장참여자는 동물		개미(10)

〈표 8〉 ‘재앙 과 관련한 은유표현 비교

	TT(번역문)	비번역문
시장의 하락세는 재앙이다	과열된(1), 붕괴(1), 재앙(1), 거품(1), 압력(3), 팽창(2)	거품(2), 칼날(2), 붕괴(2), 유혈이 낭자(1), 무너지다(1), 압력(2)

〈표 9〉 비번역문에 나타난 기타 표현들

개념적 은유	어휘
주식은 식물이다	토막(2), 꽃피우다(2), 싹을 틔운다(3)
주식 투자는 교통수단 탑승이다	바뀌 타다(3), 청룡열차(1),
주식은 음식이다	까먹다(3)

위에서처럼 같은 하부은유 유형들에서 선택된 어휘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는 TT에서 번역가가 어휘 선택을 하는데 있어 ST의 어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어휘 선택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번역과정의 보편적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로 번역문이 ST의 개입을 받게 되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ST와 TT, 비번역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번역문인 TT에서는 번역과정의 보편적 특징인 ‘명시성의 확대’의 영향으로 개념적 은유 관련 표현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영어인 SL에서는 경제나 시장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은유가 선호되었지만 한국어인 TL 텍스트(TT와 비번역문)에서는 그 빈도가 훨씬 적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 구체적인 하부 은유에서는 경제적 움직임을 ‘대기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ST, TT, 비번역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제 텍스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유기체’ 관련 하부은유의 경우 ‘물리적 움직임’ 관련 개념적 은유에 비해 훨씬 다양한 종류의 하부 은유들이 있으며, 그 선호도들도 텍스트 기능, 초점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들을 번역할 때 번역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관련한 은유 표현들에서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번역 전략을 설정해야 함을 암시한다.

3.2. 원천영역과 문법적 역할에 따른 번역 전략 분석

위의 3.1의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ST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는 TT에서 그 빈도나 선호도가 그대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L인 영어 경제텍스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원천영역 별로 서로 다른 번역전략을 분석하고 그런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는 어휘항목들의 문법적 역할에 따른 번역전략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텍스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T는 $M \rightarrow M$, $M \rightarrow M^1$, $M \rightarrow M^2$, $M \rightarrow M+D$, $M \rightarrow D$, $M \rightarrow S$, $M \rightarrow \emptyset$, $D \rightarrow M$ 와 같이 여덟 가지의 번역 방식을 사용했으며,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일치’, ‘대체’, ‘외연화’, ‘생략’, ‘함축화’ 전략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천영역별 전략과 방식이 나타난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주요 원천영역별 은유번역 방식

전략	방식	물리적 움직임		유기체		제앙		합계	
		도근	비율	도근	비율	도근	비율	도근	비율
일치	$M \rightarrow M$	25	50%	54	60%	9	100%	88	59%
	$M \rightarrow M^1$	13	25%					13	9%
대체	$M \rightarrow M^2$			1	1%			1	1%
외연화	$M \rightarrow D$	12	25%	29	31%			41	27%
	$M \rightarrow M+D$			1	1%			1	1%
	$M \rightarrow S$			2	3%			2	1%
생략	$M \rightarrow \emptyset$			2	3%			2	1%
함축화	$D \rightarrow M$			1	1%			1	1%
합계		50		90		9		149	

전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번역 전략은 ‘일치(68%)’이며 ‘외연화(29%)’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번역방식으로는 예측대로 ‘ $M \rightarrow M$ ’의 방식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 활동이나 현상과 관련한 개념들은 SL인 영어권에서 넘어온 것으로 SL에서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TL에서 대체로 일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천 영역별로는 ‘물리적 움직임’의 경우 ‘일치’와 ‘외연화’ 외의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 $M \rightarrow M^1$ ’ 방식의 다른 원천 영역에서 보다 더 자주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제적 흐름을 ‘물리적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개념적 은유는 TL에도 일반적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하부은유에서 SL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경우는 ‘외연화’의 수치가 다른 원천영역에 비해 높고 다양한 방식들이 이용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며, 번역 전략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다른 원천영역에 나타나지 않은 ‘대체’, ‘생략’, ‘함축화’와 같은 여러 전략이 이용되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것은 ‘유기체’ 관련 개념적 은유에 있어 SL과 TL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이 차이를 다루는 번역

가에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앙’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치’의 전략만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제의 침체 상황을 ‘재앙’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은 TL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하부 은유들을 살펴보자. 먼저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물리적 움직임’으로 사상한 은유의 경우 다음의 <표 11>처럼 정리된다.

<표 11> ‘물리적 움직임’ 관련 개념적 은유의 번역 방식

전략	방식	물에서의 움직임		대기에서의 움직임		지면에서의 움직임	
		도근	비율	도근	비율	도근	비율
일치	M→M	8	62%	13	57%	4	28%
	M→M'	5	38%	3	13%	5	36%
외연화	M→D			7	30%	5	36%
합계		13		23		14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움직임’ 은유 중 ‘대기에서의 움직임’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일치’ 전략(M→M:57%, M→M':13%) 외에 구체적인 기술로 나타내는 ‘외연화’ 전략(30%)이 나타났다. 이것은 SL에서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대기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은유들이 일반적이며, TL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명시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면에서의 움직임’의 경우는 ‘일치’의 전략 중 ‘M→M(28%)’이 다른 두 하부 은유들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경제나 시장과 같은 추상적인 움직임을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구체적인 유기체가 지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에 번역가가 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라는 개념적 은유가 어떤 번역전략으로 다루어졌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처럼 정리된다.

〈표 12〉 ‘유기체’와 관련한 개념적 은유번역 방식

전략	방식	회사는 인간		육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거래는 물리적 분쟁		Biz사이클은 동물		시장참여자는 동물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토큰	비율
일치	M→M	19	76%	9	39%	5	100%	9	60%	12	50%		
대체	M→M ²	1	4%										
외연화	M→D	5	20%	9	39%			5	33%	8	34%	2	100%
	M→M+D									1	4%		
	M→S									2	8%		
생략	M→∅							1	7%	1	4%		
합축화	D→M			1	22%								
합계		26		19		5		15		14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조직, 즉 회사를 ‘인간’으로 사상하여 경제참여자로 개념화한 은유와 경제 상태를 ‘심리상태’로 사상한 경우에는 TT에서 ‘M→M(76%)’을 가장 일반적인 번역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인 인간으로 대표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TL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경제 상태를 비슷한 추상적 개념인 ‘심리상태’로 사상한 경우도 모두 ‘M→M(100%)’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SL에서 경제가 depression(침체, 우울), tension(긴장), fear(공포), vulnerable(취약한), confidence(확신)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로 자주 사상되는데, TL에서 ‘경기침체’, ‘취약한 경제’, ‘신용경색’ 등 SL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시장이나 경제 상태를 유기체의 ‘육체적 건강상태’로 사상한 경우는 ‘M→M(39%)’와 ‘M→D(39%)’가 모두 선호되었다. 또한 시장에서의 거래를 ‘육체적인 분쟁’에 사상한 경우도 ‘M→M(60%)’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M→D(33%)’가 그 뒤를 따른다. 비즈니스의 사이클을 ‘동물’로 사상한 은유에서는 ‘M→D(34%)’, ‘M→M+D(4%)’와 ‘M→S(4%)’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화’ 전

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문화마다 자신들만의 이미지로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 동물 원천 영역의 경우에는 TL에 맞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이 취해질 수 있지만 번역과정의 특성상 ST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그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외연화’가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침체를 ‘재앙’으로 사상한 개념적 은유의 경우는 따로 하부 은유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종합해 보면, 경제의 움직임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사상한 개념적 은유보다는 경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은유에서 번역가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 즉 ‘대체’, ‘생략’, ‘함축화’가 나타났으며, 번역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적 활동과 관련한 하부 은유들을 제외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하부 은유와 ‘물리적 움직임’ 중 ‘지면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하부 은유에서 번역가는 은유를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술하는 방식, 즉 ‘외연화’의 전략을 보다 선호했다. 이들 은유의 공통점은 경제를 동물이나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으로 사상한 것으로써, TT에서 추상적인 경제 개념을 우회하지 않은 직접적인 육체적 활동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 번역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결국 영어인 SL에서 경제라는 추상적인 실체를 무생물이나 구체적 사건으로 은유화하는 것보다는 생물체의 직접적인 육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낸 은유적 표현들의 번역 전략에서 많은 제약과 제반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개념적 은유가 표현된 어휘항목의 문법적 역할에 따른 번역 전략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문법적 역할을 들여다 보기위해 문법적 역할을 청(2005)에 분류에 따라 개체(entity; 명사에 상응), 특질(quality; 수식어구에 상응), 함수(function; 서술어에 상응)으로 분류한다. 이 세 가지 문법적 역할의 분류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동작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의 경우는 동사로 취급하였다(예, rising, falling). 둘째,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언급하는 명사는 형용사로 취급한다(예, strength 등).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번역 전략을 검토해 볼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문법적 역할별 번역 전략 방식

전략	방식	개체		함수		특질	
		도근	비율	도근	비율	도근	비율
일치	M→M	53	69%	28	48%	7	50%
	M→M'			13	23%		
대체	M→M ²	1	1%				
외연화	M→D	18	24%	17	29%	7	50%
	M→M +D	1	1%				
	M→S	2	3%				
생략	M→∅	1	1%				
함축화	D→M	1	1%				
합계		77		58		14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개념적 은유가 명사를 통해 표현된 경우(77회)가 가장 많았으며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통해 나타난 경우(58회)가 그 뒤를 이었다. 번역 전략을 들여다보면 명사를 통해 은유가 표현된 경우 번역가는 번역 방식으로 'M→M(69%)'의 전략을 택한 경우가 압도적이었으며, 'M→D(24%)'와 'M→M+D(1%)', 'M→S(3%)'와 같은 '외연화 전략이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방식이었으며, 'M→M'의 방식이 이용되지 않았다. 또한 '생략'과 '함축'의 전략도 출현 빈도는 낮았지만, 나타났다. 이것은 구체적인 개체를 통해 근원영역이 사상된 경우 ST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거나, 구체적인 설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 선호됨을 보여준다. 반면, 서술어로 나타난 경우는 'M→M(48%)' 'M→D(29%)' 'M→MI(23%)'의 방식이 고루 이용되었다. 이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근원영역이 사상된 경우 구체적인 개체에 사상된 경우보다 TL 방식에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식어구에 의해 표현된 경우는 'M→M(50%)'과 'M→D(50%)' 같은 '일치'와 '외연화'만이 번역 전략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적 원천 영역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움직임 범주의 경우 개체의 명사 형태로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치'라는 전략 하에 'M→M' 번역 방식으로 옮겨진 반면, 함수에 해당하는 동사의 형태로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일치’, ‘대체’, ‘외연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옮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표현들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원천 영역으로 갖는 경우보다 개체인 명사에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리적 움직임’에서와 유사하게 개체인 명사로 나타난 경우는 동사로 나타난 경우보다 ‘일치’의 전략 하에 번역된 경우가 많았으며, ‘생략’과 ‘함축화’, 그리고 ‘외연화’ 전략에서도 ‘M→M+D’와 ‘M→S’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반면, 특질의 형용사 형태로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대체로 ‘외연화’의 전략 하에 ‘M→D’(예: *strong economy* → 경제의 강세, *healthy economy* → 경기회복, 건전한 경기 상태)의 방식으로 옮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앙’ 범주로 사상한 경우에는 모두 ‘일치’의 전략 하에 번역되었다.

개체, 특질, 함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체인 명사를 통해 개념적 은유를 표현하는 경우에, 경제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사상한 표현은 대부분 ‘일치’의 전략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체’로 사상된 경우는 ‘일치’ 외에도 ‘대체’와 ‘함축화’, 다양한 ‘외연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체인 명사로 사상된 경우 중 특히 ‘살아있는 유기체’로 나타난 경우가 TL에서 ‘일치’나 ‘대체’, ‘함축화’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함수인 동사나 특질인 수식어구로 나타난 경우는 세 가지 은유 모두에서 언어의 영향으로 인해 하부은유들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념적 은유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번역가는 명사로 표현되는 개념적 은유들에서 보다 민감히 반응하다고 볼 수 있게 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 텍스트상의 은유표현의 영한 번역 과정과 전략을 개념적 은유와의 상관성 속에서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은유 표현 실현의 문법적 역할과 번역 전략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번역 실무자가 번역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SL과 TL간 언어적 차이 또는 텍스트나 담화의 특징 외에도 개념적 은유, 스키마와 같은 인지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 텍스트와 같은 전문 분야의 텍스트는 그런 인지적 차이

에 대한 이해가 다른 텍스트 영역에 비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문화 간 은유 표현 방식에 있어 나타나는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차이를 번역가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그런 인지의 실패가 바로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가독성이 낮은 번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T, TT, TL의 비번역문 세 버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경제현상이나 개념적 은유 유형 중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은유의 경우가 ST에서 63%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TT번역문에서도 이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 TL의 비번역문의 경우에는 ‘물리적 움직임’ 유형이 62%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대조를 보였다. 이것은 경제텍스트를 다루는 번역가가 SL에서 선호되는 개념적 은유를 그대로 옮기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TL의 개념적 은유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경제 텍스트에서 번역투의 텍스트가 자주 생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개념적 은유들에 대한 원천 영역 별 번역 전략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은유에서 ‘일치 와 ‘외연화 가 가장 일반적인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경제의 움직임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사상한 개념적 은유보다는 경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사상한 은유에서 번역가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략, 즉 ‘대체’, ‘생략’, ‘함축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번역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 흐름 과 같이 무생물보다는 ‘유기체 와 같은 생물로 사상한 은유표현의 경우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경제텍스트의 은유번역을 다루는 번역가가 원천 영역을 ‘생물’로 갖는 표현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일치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경제현상이나 활동이 문화 간 공유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연화 전략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이유는 ‘명시성 확대 라는 번역문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경제텍스트를 다루는 번역가의 주요 전략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문법적 역할이 개념적 은유번역 전략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은유가 개체, 함수, 특질이라는 각각의 범주로 실현되는 양상과는 무관하게, 번역전략에서는 역시 ‘일치 전략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명사적) 개체 범주를 통한 은유표현의 경우 ‘일치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

만, 다른 범주에 비해 ‘외연화’, ‘대체’, ‘함축’, ‘생략’과 같은 보다 다양한 번역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번역가가 명사적 개체를 통한 은유 표현들에서 보다 민감히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명사적 개체의 은유 표현들이 화자의 의미 전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텍스트상의 은유 번역 과정을 수사학적 측면이 아닌 인지적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번역가에게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 3(2): 81-112.
- 김순영 (2008)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번역」, 『번역학연구』 9(3): 7-26.
- 박영순 (2000) 『한국어은유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창식 옮김 (2003)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주식을 사라』 서울: 예지.
- 이혜승 (2008a) 「번역과 반역의 경계 고찰」, 『노어노문학』 20: 121-150.
- _____ (2010b) 『은유는 번역될 수 있는가』, 경기: 한국학술정보.
- 홍찬선 (2005)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서울: 이지북.
- Blum-Kulka, S.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 House-Edmondson & S. Blum-Kulka.(ed.)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in Translation*, Tübingen: Gunter Narr.
- Cameron, L. (1999) ‘Identifying and Describing Metaphor in Spoken Discourse Data’ In L. Cameron & G. Low (ed.) *Researching and Applying Metaphor*, Cambridge: Cambridge UP.
- Charteris-Black, J. (2000) ‘Metaphor and Vocabulary Teaching in ESP Economic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19: 149-165.
- Charteris-Black, J. & T. Ennis (2001) ‘A Comparative Study of Metaphor in Spanish and English Financial Reporting’,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20: 249-266.

- Chung, S. (2005). 'MARKET Metaphors: Chinese, English and Malay', In *The Proceedings of the 19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19)*, Taipei: Academia Sinica.
- Crerar-Bromelow, G. (2008) 'Can you Awareness of Conceptual Metaphor Aid the Translator in his/her Task? In Selected Papers from the 2006-2007 Stockholm Metaphor Festivals (eds.), N.-L. Johannesson & D.C: Minugh.
- Dagut, M. (1976). 'Can Metaphor Be Translated? *Babel: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XXII (1): 21-33.
- Hatim, B. and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arson, Mildred L. (1984).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Lanham MD: University of America.
- Navarro, P. (2001) *If It's Raining in Brazil, Buy Starbucks*, New York: McGraw-Hill.
- Newmark, P. (1981a)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 _____ (1988b).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affner, C. (2004) 'Metaphor and Translation: Some Implications of a Cognitive Approach', *Journal of Pragmatics* 36: 1253-1269.
- Van Den Broek, R. (1981) 'The Limits of Translatability Exemplified by Metaphor Translation', *Poetics Today* 2: 73-87.

[Abstract]

A Study on the English-into-Korean Translation of Metaphors in Economic Texts

Shin, Jin-won · Park, Kis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ranslational processes and strategies in the English-to-Korean transla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s in economic texts. It is shown that conceptual metaphor theory is an effective and systematic way to investigate the processes in economic tex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ual metaphor schema of 'living organism' is used most frequently in the STs, and it is also true of the corresponding translated TTs. However, the metaphor schema of 'physical movement' is the most common in the non-translated Korean texts. Hence the mismatch in the popular conceptual metaphor schema types between translated TTs and the non-translated Korean texts might lead to the use of 'translationese' in the translation of the texts. Second, the most common translational strategies used for the translation of metaphors are 'accordance' and 'explicitization'. However, more strategies which include 'replacement', 'implicitization', 'omittance' are used for the translation of metaphors which use the schema of 'living organism'. Third, the 'accordance' strategy is most commonly used for the translation of metaphors of 'entity', 'function', and 'quality' elements.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translation of 'entity' metaphors employs more translational strategies.

▶ Key Words: metaphor, conceptual metaphor, economic text, schema, living organism, accordance, explicitization

신진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박사수료

sabinashin@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체계기능문법

박기성(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ksepark@pusan.ac.kr

관심분야: 번역학, 영어의미론, 대조언어학

논문투고일: 2011년 5월 01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